



##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똑똑하게” 경기도, 23일부터 똑버스 부천 범박·옥길·고강 등에서 운행

맞춤형 대중교통수단 '똑버스'...23일부터 부천 범박·옥길동, 고강본·고강1동에서 운행 개시  
시범 운행 후 4.30(화)부터 총 5대로 정식 운행 개시 '24년 내 똑버스 125대 신규 도입·운행 추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부천 범박·옥길·고강 일원에서 운행을 개시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23일부터 부천시 내 2개 운행구역 ▲범박·옥길동(2대) ▲고강본·고강1동(3대)에서 똑버스를 시범 운행한 후 4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차량은 12인승(입석 포함 23인승) 카운티 2대와 13인승 쉐라티 3대이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똑버스는 신도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령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이 부르면 찾아가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실 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 호출과 결제가 가능하며, 승객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이나 승차지점, 승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승객은 안내받은 승차지점과 승차 예상 시간에 맞춰 똑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같은 시간에 경리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1천450원,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도는 부천을 시작으로 올해 안성, 여주, 연천 등 지역에 똑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총 125대를 신규 운행할 계획이다.

엄기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부천 똑버스 운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맞춤형 교통서비스인 똑버스 운행을 도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똑버스가 역곡역, 원종역 등 부천시 내 주요 거점 연계로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똑버스 운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운영 효율화 방안을 통해 도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전남도, 목포대·동신대 연합 글로벌대학30분 지정 총력

16일 예비지정...목포대, 해상풍력 등 특성화 계획 호평



전남도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벌대학30 공모에 국립목포대학교와 동신대학교·초당대학교·목포과학대학교 연합이 예비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총 65건의 혁신기획서를 평가해 16일 20개 대학을 예비 지정했다. 이 가운데 전남에선 목포대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이 평가를 통과했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에서 목포대는 해상풍력, 해양관광, 조선산업 등을 핵심으로 한 특성화 계획을,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연합은 지역과 함께하는 공공형 사립대학 모델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함께 예비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순천제일대학교는 정주형 외국인 인재 양성 등을 골자로 한 지자체 연계 혁신계획을 제시하며 전문대로서의 자체 혁신역량을 보여줬으나, 아쉽게도 예비 지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예비 지정은 동부권에 위치한 순천대와 서·중부권에 위치한 목포대, 동신대 연합이 지역 균형을 이룬 지역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비지정 대학은 6월까지 혁신기획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서면·대면 평가를 거쳐 7월 중 10개 내외의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예비지정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본지정 평가를 통해 목포대와 동신대 연합이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대학 전담반을 즉시 구성해도, 대학, 지역 산업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 전략을 마련하고, 담당 실국과 출연기관의 행정적 지원, 주력산업 연계 및 협업체계 등이 포함된 실행계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 관련 부처에 지역 대학의 글로벌대학 지정 건의 및 지자체 차원의 글로벌대학 육성 의지 표명 등 본지정을 위한 측면 지원도 발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올해 글로벌대학으로 도내 대학이 신규 지정되는 것은 200만 전남도민의 염원이 담긴 중의 사안”이라며 “이번에 예비 지정된 목포대와 동신대연합이 지·산·학 거점대학으로 거듭나도록 글로벌대학 30분지정을 위해 전폭적인 노력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도정 현안 중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1일 교육부가 주관한 글로벌대학 혁신 이행 협약식에도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박종배/기자

## 경북도, '별천지 영양'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 최종 선정

국비 60억 원 확보  
(총사업비 120억 원),  
지역주도형 관광  
활성화 추진

경상북도는 지역 주도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영양군 '별의별 이야기, 영양'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체부 공모사업은 지역의 특화 소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체부가 2028년까지 5년 동안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영양군은 '별의별 이야기, 영양'을 주제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청정한 반딧불 생태관광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영양국제밤하늘공원은 국제밤하늘협회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공원으로 지정했다.

영양군은 밤하늘 소재 브랜드 개발, 디지털 천체투영관 '오로라돔' 설치, 별의 정원 조성, 커뮤니티 공간 '별별 스페이스' 조성, 별의별 어드벤처 체험 행사 개발 등 특색 있고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조성해 관광객을 맞는다.

경북도와 영양군은 연내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8년까지 핵심사업과 연계협력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와 각종 단체(영양축제관광재단, 영농조합법인 수하, 반딧불이 보존회 등)가 협력해 영양군을 대한민국 유일의 밤하늘 특화관광지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사업이 2020년 포항시, 2021년 영주시에 이어 2024년 영양군이 세 번째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도내 관광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컨설팅과 영양군의 내실 있는 계획수립 등이 시너지를 발휘한 값진 성과다.

이번 공모사업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재개해 열린 경쟁을 펼쳐 경북 영양군을 비롯해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등 3곳이 선정됐다.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이 지역관광 활성화

를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자원 발굴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고양특례시

# 2024

## 고양국제꽃박람회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지구환경과 꽃  
Flower in the Earth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 경상북도의회, “日정부,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 즉각 철회하라”

##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 담긴 외교청서 철회 및 진정한 반성 촉구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4월 16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 1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국회보고에서 행한 독도영유권 발언을 시작으로 3월 중학교 교과서 왜곡검정에 이어, 이 날 또다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경비를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배한철 의장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강력히 비판하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260만 도민

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구미)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건설적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윤근수/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파트너십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 ...

## 도의회 -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협약체결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 이 16 일 경기도의회에서 도의회 -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법적분야 네트워크 구축 등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교류 ▲ 도의회 - 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 ▲ 시군의회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등이 있다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기정 의장은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이번 협약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 파트너십을 한층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 경기도의회와 31 개 시군의회 간 맺어진 입법 네트워크가 앞으로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훌륭하게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김범상/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 도내 학교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와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방안 제시

## 학교환경은 ‘추가적인 조치’가 아닌 ‘필수적인 조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 (전주11)은 15일 제40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학교 내 공기 질 개선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더욱 철저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명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교훈 삼아, 도내 학교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와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일상의 중요성과 더욱 강화된 대비책의 필요성을 일깨웠다”면

서 “특히,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 제공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내 학교들에 이미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공기 순환 장치들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 장비들의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설치된 공기청정기 장비들은 미세먼지와 각종 병원균을 차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과 각 학교의 적극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지 의원은 “교육청에 학교들이 장비 관리와 유지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이와 더불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 일정과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교 커뮤니티와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이남출/기자



# 영주시의회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영주시의회는 4월 16일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효율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증축부지를 비롯한 총 5개소

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동물보호센터 증축부지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로부터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수렴했으며, 향후 개선사항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영주호 관광 순환 보행교 조성

사업지, 영주 어드벤처 캐슬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영주댐 부근의 관광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이달 임시개통 된 마구령터널에 방문하여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살폈으며, 4월 30일 개원 예정인 코레일 인재개발원 영주교육원에 방문하여 개원 준비상황과 선비세상 운영과 연계한 숙박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객들의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점검했다.

심재연 의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미비한 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 부산시의회, 부산아동병원 건립 추진 위해 시의회·시민단체·전문가 머리 맞댄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원연구단체 ‘부산역’ 공동주최, 전문가 정책간담회 개최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인 ‘부산역’(부산시민이 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연구모임, 대표 성장용 의원(사하구3, 국민의 힘))이 공동 주최하는 ‘부산아동병원 건립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4월 16일 14시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부산시는 아동병원 건립을 위해, ‘22년 아동병원 건립 수요·규모에 관한 기초연구 용역을 시작으로, ‘23년 8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2월 중간 보고회까지 마친 상황이다.

금일 개최된 간담회는 건립추진 중인 부산아동병원의 기능과 역할, 운영 방안을 주제로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과 성장용 ‘부산역’ 회장의 환영사 이어 안성민 시의장의 축사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형철 의원과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위원을 비롯하여, 부산시(건강정책과 박두영 과장), 부산의료원(김형수 공공의료본부장), 부산연구원(김두례 연구실장) 등 유관기관과 유관단체(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김희석 본부장, 부산유치원연합회 전수욱 남부본부장) 및 시민단체(지방분권

패널토론 후에는 자유토론이 행해져 아동병원에 대한 표준적·합리적 서비스의 제공과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갔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형철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많은 의견이 아동병원 운영시에 적극 반영되어 어린이의 특성에 맞고, 어린이의 인격을 보호하며 어린이 중심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며 포부를 밝혔다.

또한 패널로 참석하여 부산아동병원 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문영미위원도 “병원 건립의 필요성은 부산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바이나,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부족한 부분을 아동병원이 어떻게 충족해 가고, 부족한 소아 전문의의 지속적인 확보와 배후진료 연계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재, 부산아동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용역 완료 이후 사업규모와 진료과목, 부지 등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투자심사 등 건립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안성민 의장은 “부산아동병원이 설립목적의 취지와 방향에 맞게 운영되고 나아가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희태/기자



# 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16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0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4년도 대구시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대구시로부터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정정 현안 사업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의 추경인 만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었는지, 예산 규모는 적정인지 더욱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등 위기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향후 대구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제시하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리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접경지역에서 가족이 즐기는 역사·생태 관광명소로 탈바꿈

## 역사문화생태 테마 자원과 스토리를 엮은 지역관광 콘텐츠 4곳 선정

경기도가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양평 두물머리, 고양 한국항공대학교 및 화전마을, 가평 청춘역 1979 공원 일대 4곳을 역사·문화·생태 이야기를 담은 관광명소로 조성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역사·문화·생태 관광융합콘텐츠 개발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시군의 역사·문화·생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것으로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에는 김포시와 양평군 2개 시군이, 기존 관광콘텐츠에 대한 추가지원으로는 고양시, 가평군 2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지역에는 각 6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김포시는 김포 북부 관광지를 돌며 해설과 함께 다채로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조강 에코 피크닉 프로그램'과 옛 할아버지장 '조



강'의 스토리가 담긴 미디어콘텐츠와 애기봉의 역사와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관광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양평군은 대표 관광지인 두물머리를 거점으로 생태자원을 연결한 상품인 '두물머리 물레길 인생(인문+생태) 트레킹'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두물머리'와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세미원'에서 인문학과 생태학적 해설을 들으며 체험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양시는 '항공에 핀 화전의 꽃'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023 고양 미래 직업 페스티벌에서 한국항공대학교

학술동아리가 참여한 관광 프로그램 중 만족도가 높았던 드론미니게임, 열기구탑승체험, 별자리관측 등 7개 프로그램과 3개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과학을 기반으로 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가평군은 지역 명소인 '청춘역 1979' 일대를 바탕으로 '레트로 청평, 다시 날다'를 기획했다. 8월부터 '여름밤의 피크닉 콘서트', '여름밤의 레트로 음악 시네마', '레트로 청평 보이는 라디오' 등 레트로 콘셉트의 문화 체험으로 세대를 연결하는 관광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선정된 4곳 모두 다양하고도 오랜 이 야기가 담겨있는 관광명소라는 특징이 있다"면서 "계속해서 경기도 관광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안전하게 즐기며 재미있고 유익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안전한 유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 정담회 실시

## 황진희 의원 "경기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적절한 학급당 유아 정원 감축 및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16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관계 공무원, 한국국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회장, 경기도 공립유치원 교사연합회 회장 및 임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유아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청취하는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앞서 도 연합회 권수영 회장은 황진희 의원이 유아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함을 표하며, 경기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도 연합회 권수영 회장은 2024학년도 유아 학급당 정원 조정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의 의견 수렴이 미흡한 점에 대해 우려와 문제를 제기하며,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급당 유아 정원 감축 (현행, 5세: 24~26명 → 제안, 5세: 18명), ▲유아교육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학급당 유아 정

원의 3개년 계획 수립 ▲안전한 유아 교육 여건 개선 지원 등을 제안했다.

도 연합회 권수영 회장은 "5세 학급의 유아 수가 최대 26명으로 한 명의 선생님이 많은 유아를 온전히 교육할 수 없는 환경이며, 이는 교육의 질 저하와 함께 유아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라며 "유치원 교사로서의 낮은 만족도와 교사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관계자는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급당 유아 인원의 유연한 운영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희 의원은 "사회가 발전한 만큼 유아와 선생님의 교육환경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며 "경기유아 교육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목표 아래에서 학급당 유아 정원 감축 및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수해 복구" 요구

## 오 의원, "행정절차 중복은 하천 수해복구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개선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석규 의원은 건의안에서 "하천의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가 아닌 사전협의로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하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22 재해연보에 따르면 이상강수 등 집중호우로 발

생한 재산과 생명 피해는 2022년 기준, 전국 13개 시·도, 121개 시·군·구에서 19명(사망 17명, 실종 2명)의 인명피해와 약 3,155억 원(사유 739.32억 원, 공공 2,415.2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미정비 하천과 소하천에 그 피해가 집중됐으며, 하천 주변 지역 침수, 제방 유실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건의안에서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그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민을 구호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가진 책임과 임무"라면서, "특히, 하천 수해 복구 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하천정비사업에도 없는 행정안전부의 사전심의 절차를 추가로 이행해야 하므로 수해 복구 공사 발주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천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은 중앙 또는 시·도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되므로 이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사업 사전 '심의'가 아니라 '협의'로서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천 수해가 발생해 각종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해결 노력은 하천 수해 복구의 신속한 진행"이라면서 법령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경기도 또한 복구계획 심의 확정 후 국비 교부 전 예비비 선(先) 사용,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행안부와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한편, 건설위 심사를 통과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은 오는 26일 제3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지방 도시공사 재무 건전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오는 4월2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3기 신도시, 용인플랫폼도시개발사업 등 경기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개발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계획했다.

토론회는 성서경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와 정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기획처장이 각각 '지방공기업 역할 요구 관련 정부 정책 동향 및 규제개혁', '정책사업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재무리스

트 관리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경중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 문용범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 김영선 경기도 택지개발과장, 김길식 인천도시공사 마케팅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백현종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개발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됨에 따라 부채비율이 2026년 34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출자에 의존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측면에서의 대안마련이 요구되어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토론회는 도민 누구나 현장참석이 가능하며 유튜브 '경기도의회' 채널에 생중계 될 예정으로 온라인을 통한 질의 및 참여가 가능하다.

김범상/기자

자연에서 도자기가 피어나다 이천에코세라믹스

제38회 이천도자기축제 Icheon ceramic festival 2024

2024.04.25 Thu - 05.06 Mon  
이천도자예술큐(에스파크), 사기막골도예촌

무료 입장 · 무료 주차  
주최 이천시·이천문화재단, 주관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 광주시, 정책 수립 참여하는 청소년 자치기구 개원식 개최

광주시는 1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통합 운영하는 '제4대 광주청소년교육의회·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개원식'을 개최했다.

광주청소년교육의회·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이 지역의 정책 수립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소년 자치기구로, 광주시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의 협력을 통해 통합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원식은 의장단 선거 및 상위원회 임원 구성을 시작으로, 방세환 광주시장,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김중삼 초등교육지원과장, 황소제 시의원, 노영준 시의원이 개원 본식에 참석하여 위촉장과 배지를 수여

했다.

이날 선출된 정지민 의장(광남고 2학년)은 개인 선포를 통해 "사회문제 및 지역사회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청소년교육의회·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5개 분야(생태환경·다문화, 복지·인권, 문화·체육, 교육·진로, 건강·안전)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각 분야의 정책 의제를 발굴해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다. 2025년 3월까지 정기회의, 지역사회 연계 사회 참여 활동, 학생자치 리더십 캠프 등을 운영하며, 9월 중 정책발표회 '정책오디션'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MZ세대 공무원 이탈 막으려면 행정안전부가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높여야"

이 시장, "용인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도내 최고이나 기준인력·기준인건비는 비슷한 규모 도시보다 낮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의 국가사업과 이양된 특례사무 등으로 급증하는 시의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를 인구나 행정수요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한문에서 "용인특례시의 경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과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행정 업무량이 폭증하는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도내 최고(1인당 333명)여서 시의 직원들은 격무의 조속한 해소를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로 이어져 시의 인사체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만큼 정부의 공무원 승진 소요기간 단축방안은 용인특례시에는 실효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인사혁신처와 함께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을 앞당기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용인특례시의 경우 수련·고양·성남 등에 비해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인력을 증원하기 어려워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없으니 MZ세대 공무원의 승진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의 이같은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면적 기준으로 수원특례시의 4.9배, 성남시의 4.2배나 되는 매우 큰 도시인데도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는 인구가 몇 배나 적은 수원특례시나 고양특례시, 성남시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시의 인력 증원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이 공무원 정원 동

이 때문에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어려우므로 용인처럼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가 낮게 책정된 도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대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이 시장의 지적이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이상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시의 현황 자료를 건네주며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의 문제를 제기하고, 용인처럼 성장 속도가 빠른 도시에 대해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16일 이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한 뒤 연락을 해서 서한 내용을 알려주자 이 장관은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범상/기자

# 수원시, '2024년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 훈련생 5월 7일까지 모집

## 청년·경력단절여성 법률사무원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취업연계 지원

수원시와 아주대학교가 '2024년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 훈련생을 5월 7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가 아주대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수원시 거주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법률사무원 직무 전문 교육을 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원 양성 과정 전문교육(240시간)을 수료하면, 법률전문가

와 훈련생을 일대일로 지도하는 '멘토링'을 한다. 이후 12월까지 취업 컨설팅을 해주고, 법률사무소·기업 법무팀 등 취업을 지원한다.

모집 공고일(4월 16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둔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과 경력단절여성이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5월 7일 오후 5시까지 지원해야 한다. 25명을 선발하고, 교육은 아주대학교 캠퍼스플라자 3층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서류·대면 평가를 거쳐 5월 20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5월 23일 개강해 특강과 컨설팅을 한 뒤, 8월까지 법률사무원 직무전문교육을 한다. 직무 전문교육을 수료하면 12월까지 '법률전문가와 훈련생 1대1 코칭(멘토링)', '취업컨설팅, 법률사무소·기업 법무팀 취업지원'이 이어진다.

강사진은 아주대학교 로스쿨 교수,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수료생에게는 아주대학교 로스쿨의 법률 인프라·네트워

크를 활용해 법률사무소·기업 법무팀 취업을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행정력과 아주대학교의 법률 인프라·네트워 크를 활용해 청년·경력단절여성을 법률사무원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겠다"라며 "취업 희망자에게는 취업처를, 기업에는 역량 있는 인재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사회 내 노동시장 경쟁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화성시,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중간보고회 참석

## 경기도·성남·용인·수원시와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및 반영 주력



화성시가 16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

간보고회에 참석해 그간 진행된 용역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잇는 광역철도로, 화성시가 경기도·성남시·용인시·수원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철도사업이다.

이번 중간보고 주요 내용은 ▲노선 계획을 위한 기술 검토 ▲장래 이용수요 예측 ▲사업비 추정 ▲타당성 분석 결과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화성시를 포함한 5

개 지자체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선결 과제임에 공감하고 향후 전략 수립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화성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용인시·수원시와 함께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경기도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기용 교통국

장은 "이번 철도사업은 인구 40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 남부 4개 거점 도시와 서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노선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만큼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면서 "아울러 화성시 생활권 연계 및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철도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피어나다 남원**

춘향, COLOR 愛 반하다!

제94회 **남원 춘향제**

24. 05.10.(금) ~ 05.16.(목)

광한루원, 예춘, 요천둔치 및 사랑의 광장 일원



### 이천시, 설성농협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임대농기계 지원

농작업 일관기계화에 필요한 농업기계 15종 18대 지원 전달식 개최



이천시는 4월 16일 설성농협협동조합 농기계센터에서 농기계임대 사업의 일환인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임대농기계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한 지역농업인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파종·정지에서 수확까지 전 과정 일관 기계화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5~8년간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천시는 이번사업을 위해 설성면의 주산지작목인 콩, 마늘, 대파 재배 생산에 투입되는 농업용 트랙터를 포함해

15종 18대(사업비 2억원)의 임대농기계를 설성농협에 지원했다.

본사업의 추진으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를 제고할 수 있다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임대농기계 지원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생산력 향상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에 애착을 가지고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여주도시공사,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친절 캠페인 실시

여주도시공사는 4월 15일 ESG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여주 세종시장에서 '여주시 소상공인 지원 친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공사와 여주시 소상공인 연합회, 시장 상인회 등이 참여했으며, 여주시 소상공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 방문객을 친절하게 맞이할 것을 다짐하며 '친절한 소상공인'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며 캠페인에 동참했다.

공사는 여주시 "친절로 다함께 행복

한 여주만들기" 시정 방침에 적극 동참하며 다양한 친절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 11일 여주시소상공인센터, 여주시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사 임명진 사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친절히 맞이하여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범상/기자



### 성남시, 공공데이터 활용·분석 아이디어 공모...내달 31일까지



전 국민 대상 "창의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발굴"

활용해 저출산 극복, 첨단산업 육성, 재건축·재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남지역의 현안 해결이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개인 또는 3명 이내 팀을 이뤄 응모할 수 있다.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 있는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제안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에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7월 말까지 1·2차 서류평가과 3차 발표평가로 기획력, 노력도, 분석 적합성, 정책활용도, 창의성 등을 심사해 7개(팀)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선정된 아이디어 제안자(팀)는 최우수상(1) 200만원, 우수상(2) 각 100

만원, 장려상(4) 각 50만원 등 모두 600만원의 시상금과 성남시장 상장을 받게 된다.

최우수상 수상자(팀)는 행정안전부가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통합 본선에 성남시 대표로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공공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과 함께 창의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행정업무 과학화에 이바지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2회째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이 공모로 '고령 보행사고 위험지역 진단 및 실버존 연계' 등 6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시정 반영을 검토 중이다.

김범상/기자

### 고양특례시, 제3차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2024~2028년 5개년 종합계획으로 책 읽는 도시 앞장



고양특례시가 '제3차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도서관센터는 지난 15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수행할 5개년 종합계획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고양시 도서관 운영위원을 비롯한 시민들과 도서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통계청이 지난 2023년 11월에 발표한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하락세가 멈추진 않던 국민 연간 독서 인구가 2년 전보다 2.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독서 인구 1인당 독서 권수는 0.4권 감소하여 긍정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독서 행태와 기술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도서관의 역할과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맞춰 이번 연구용역에는 고양시 도서관과 독서문화 전반에 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제2차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2020~2023) 평가 △대내외 여건 및 환경변화 분석 및 진단 △지역사회 요구조사 및 서비스 모델 개발 △비전·목표·추진전략·정책과제별 단계별 로드맵 등이 포함된다.

고양시 도서관센터 김미정 소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도서관 정책 수립과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도서관 이용자와 비이용자 모두를 아우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독서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인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책임연구원 심효정 교수는 "고양특례시 규모와 특성에 최적화된 종합계획 연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한 환경미화원 신창훈씨에 표창 수여

3월 22일 생활폐기물 수거 중 발견한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로 소생시켜



하남시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 환경미화원 신창훈씨의 헌신적인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15일 표창을 수여했다.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는 신창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 50분경 신장사거리 인근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 중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진 할아버지에게 심폐소생술을 실

시해 생명을 구했다.

당시 신씨는 쓰러진 환자께 곧바로 다가와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심폐소생을 실시했다. 다행히 환자는 얼마 후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고, 이후 도착한 119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했다.

신씨는 환자의 의식이 돌아온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묵묵히 진행했다. 시민들은 응급상

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생명을 살린 신씨의 선행을 제보했고, 해당 사업은 지역의 한 언론사에서 보도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현재 시장은 "이웃의 생명을 구한 신창훈씨의 따스한 마음과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됐다"라며 "앞으로 하남시는 시민 누구나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신창훈씨는 "직업 특성상 평소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교육받은 심폐소생술 체험이 이번 위급상황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다시 한번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 제27회 2024 광주왕일도자 컨퍼런스

## 2024. 5. 3. 금 — 5. 15. 수

### 곤지암도자공원 일원 13일간

개막식 5. 4. (토) 16:00

20<sup>TH</sup> WASBE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경기 광주  
2024. 7. 16. - 7. 20.



# 전남도, 자활근로 활용 '소방관 방화복 세탁사업' 실시

## 4개 시군 지역자활센터 신규 일자리 창출...소방관에게 인기

전라남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살도록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소방관 방화복 세탁사업'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목포·순천·화순·완도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관 방화복 세탁사업은 소방 방화복 특성상 일반 세탁이 어려워 특수 세제를 사용해 소방관이 직접 방화복을 세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따라 4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세탁사업단을 구성, 자연 건조가 가능한 공간의 사업장을 준비하고 전남도는 각 센터에 방화복 전용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비 등을 도 자활기금에서 2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 2월부터 본격 운영한 이후, 현재 전남 20개 소방서와 세탁물 계약(2억 3천160만 원)을 했다.

3월 말 현재까지 총 699벌(화순



190벌·목포 201벌·완도 151벌·순천 157벌)의 소방방화복을 세탁했으며 자활근로 참여자 21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됐다.

소방관 방화복 세탁사업은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에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세탁기가 아닌 소방용품 시험인

증(KFI)을 받은 세탁기에 방화복 전용 세제를 사용하며, 먼저 외피에 묻은 이물질을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처리한 후 내피와 외피를 별도 세탁해 자연건조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방화복의 훼손 정도가 적어 크게 환영받고 있다.

특히 각 세탁사업단에서는 1주일에

1~2회 각 소방서와 119센터에 직접 수거·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어 소방관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있다.

이지원 목포지역자활센터장은 "계약한 소방서에 빨래 수거함을 설치해 소방관의 위생과 편의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방화 두건, 장갑, 신발까지 물품을 확대하고 틈새시장인 단체복, 기속사 이불 빨래 등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자활기금을 통한 소방관 방화복 세탁사업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관의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자활 근로자의 기술 향상과 사업능력 배양을 통해 탈빈곤과 자립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 순천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30팀 최종 선발

## 지역문제 주도적 해결 및 청년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체 선정 완료

순천시는 지난 12일 순천시 청년센터에서 2024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 신청한 31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선정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 청년공동체를 공개모집한 결과 총 31개팀이 신청했으며, 이날 선정심사에는 공동체가 직접 공동체를 심사하는 선호도 평가점수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30팀의 공동체를 최종 선정했다.

더불어 사업 운영방향 안내 및 공동체간 네트워킹도 진행하여 참여팀간의 정보공유와 친목의 시간도 함께 가졌다.

선정된 청년공동체에는 진입, 성장, 프로젝트의 순천형I, 전남형, 순천형II의 3개 유형에 따라 25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의 과업수행비와 네트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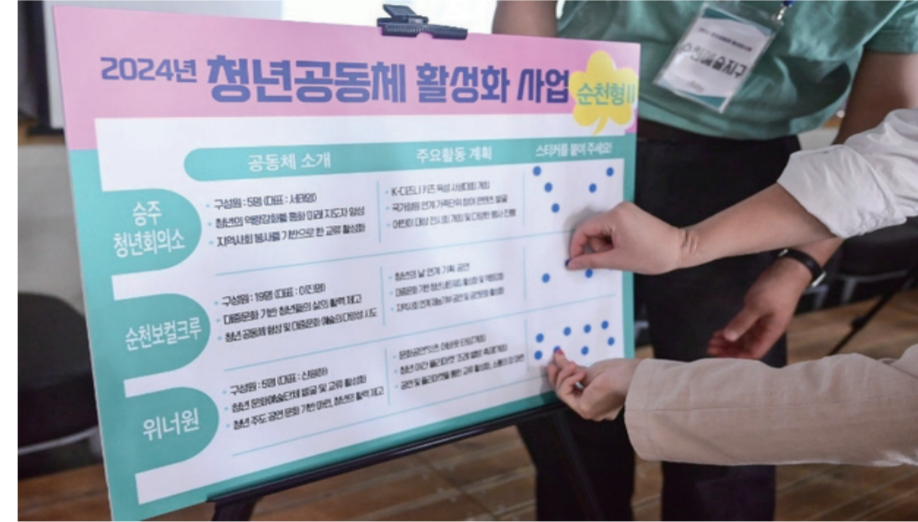
크 활동을 지원한다.

이들은 △K-디즈니 연계 관광활성화 △원도심활력화 △청년주도 행사·교육 △청년 취·창업 지원 △장애인 인식 개선 등 청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과업들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활력에 기여할 전망이다.

청년공동체 활동은 5월에서 11월까지이며, 공동체 활동 종료 후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및 개선점,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에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높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 나주시, "아이 낳고 싶다면 건강부터 챙기세요"

## 임신 희망 부부 대상 사전 건강관리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는 임신·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주시는 15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 건설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더욱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신을 희망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다. 온라인(e보건소) 또는 주소지 보건소로 구비서류를 갖춰 사전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검사를 받으면 된다.

사전 검사는 부부 모두에게 적용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난소, 자궁 등) 검사비를 최대 13만원 한도 내에서, 남성은 정액검사비(정자정밀형태검사)를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검사비 청구는 검사 후 3개월 이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 두고 있는 신혼(예비)부부라면 전남도 사업인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성병검사, 항체검사,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등)에 대해 여성 최대 17만원, 남성 최대 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강동열 나주시보건소장은 "임신 전부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생문제 극복을 위해 다각적인 출산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 강진군,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 디지털농업 선구자 양성

## 농업기술센터, 디지털농업대학 상반기 현장교육 실시

강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9일과 11일 제1기 디지털농업대학 시설원예 스마트팜 과정과 스마트한우 과정의 상반기 현장교육을 진행해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지난 9일 진행된 시설원예스마트팜 과정 현장교육은 22명의 교육생이 화순군 도곡면의 스마트팜 선도농가 두곳을 방문해 스마트팜 활용 생산방법과 고품질 농산물 재배 방법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첫 방문지 이시성 대표는 40여년간 '스윙베리' 딸기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으로 생산비 절감을 이뤄낸 선진농가이다.

이 대표는 현장교육 중 재배 작목과 외부환경을 고려한 스마트온실 환경제어의 중요성과 함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예농가의 새로운 시도를 위한 방안이 될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선도농업인 박경종 대표는 화순 도곡면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으며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법에 대해 설명한 뒤 급격한 농업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농업인의 주도적인 교육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11일 스마트한우과정 현장교육은 33명의 교육생이 곡성의 선도농가인 대항한우 권영태 대표의 축사와 순천대 IT기반 첨단 농업센터를 방문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권 대표는 한우 마이스터로서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사양관리와 육종기술 등 현장에 접목 가능한 방안을 교육생이 찾을 수 있도록 경영소견과 한우사육 노하우를 전달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순천대 IT기반 첨단 농업센터의 스마트팜시범농장은 IT기술이 접목된 온실과 온사, 우사를 갖춘 첨단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순천대 이상성 교수의 지도아래 교육생은 농장을 살펴보고 IT기반 축산업의 발전방향과 스마트축사 시스템 원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군의 디지털농업대학은 이전의 녹색문화대학이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이끌 전문농업영업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성화된 이론강의와 현장학습 등을 통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위해 관련 교육을 추진 중이다.

추윤호/기자

# 남원시, 시민의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8개 생활체육사업 실시

남원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8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은 관덕정 체험장 활성화, 생활체육광장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생활체육교실, 체력인증센터, 동호인리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유소년 축구교실 등 총 8개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 신규사업인 관덕정 체험장 활성화 사업은 관덕정 궁도장 활성화를 위해 관덕정 궁도 체험장에서 매주 주말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궁도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체육광장은 총 7개 도시공원(도

동 근린공원, 용성고, 왕정고, 만인의 충, 승사고, 사랑의광장,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새벽 5:30부터 6:30(근린공원 밤 19:30에서 20:30)까지 체조와 태권체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사이트에 등록된 체육관 수강료를 매달 100,000원씩 지원해주며, 현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은 5부터18세 저소득층이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생활체육 활성화 공약사업 목표인 연간 누적인원 120,000명 참여와 시민의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개개인에 맞춘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 함평군, GS홈쇼핑에서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관광상품 판매

## 전국 단위 관광객 함평나비대축제장 방문 기대



전남 함평군이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을 GS홈쇼핑과 연계해 방송 판매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해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 관광상품 판매에 이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전라남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우수 관광상품 개발 및 GS홈쇼핑 방송판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관광상품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새마을호 전세 열차를 통해 군산역 또는 광주 송정역까지 이동 후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관람객 이동 편의를 제공하며, 함평나비대축제 관람, 돌머리 해수욕장 및 무지개 다리 산책 등 함평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는 당일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판매금액은 89,000원으로 14일 오전 6시 첫방송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GS홈쇼핑에서 방송 판매되며, 생방송 전화주문 또는 GS SHOP 온라인쇼핑몰,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구매

가 가능하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전라남도 명예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함평나비대축제에서 아름다운 나비와 봄꽃이 만들어내는 절경을 만끽하고 가족과 또는 연인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제26회를 맞는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 찾아 떠나는 함평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영진/기자





# 새만금 수질개선, 전북도민들이 발 벗고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과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 하천 주변 비점오염원 제거, 불법 쓰레기 투기·소각 감시, 수질보전 관련 교육·홍보 등의 새만

##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 4개 단체 최종 선정

금유역 수질보전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1~3월 민간 공모를 통해 도내 8개 단체가 접수했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사전심사단이 사전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단체 등을 1차로 선정했다.

최종적으로 전북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개 단체가 확정됐으며, 단체별로 1천8백만원(총 7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신청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단체별로 추진하는 사업은 쓰레기 등이 산재된 하천변에 집게 등 쓰레기 수거용 장비를 비치하여 플로깅 거점을 설치한다.

또한 SNS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플로깅 참여를 유도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변정화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경지에 비료사용 등으로 우기시 유출되어 비점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범적으로 논 배수물과 설치사업을 펼쳐 지역주민에게 현장 체험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에게 물고설치 방법의 실효성을 알리는 등 농업 비점오염원 감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지원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 추진여부, 사업수행 현황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을 상·하반기 나누어 중간 점검을 추진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실천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특히, 선정단체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도민들이 비점 저감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새만금이 도민들의 자랑스런 생태 공간이자 삶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이 함께하는 새만금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새만금 상류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민간 환경단체들과 협업체를 비점오염원 저감 등 수질보전 활동을 지원해 왔었다.

이남출/기자

# 목포시, 신안군과 통합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 개최

세계로 비상하는 해양문화도시'비전과 상생협력과제 제시



목포시가 지난 15일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에 대해 목포시장, 신안군수,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준비)위원, 시의회 의원, 간부공무원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026년 7월 1일 목포·신안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 로드맵을 설정해서 각 단계별 추진과제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2단계로 무안과의 통합을 이룸으로써 광역단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통합사례분석, 주민의견 조사결과, 부분별 통합효과분석, 통합시 비전과 상생협력과제 도출 등 성공적인 통합방안 마련 연구결과 발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용역을 맡은 목포대학교 김병록 교수는 행정통합 효과로 행정편익이 9,73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9천억원으로 전망됐으며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시 비전을 "세계로 비상하는 해양문화도시"로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식품산업을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역사 문화와 해양 생태관광 플랫폼 구축 등 핵심전략과 상생협력과제 11건을 도출하고 이에 따

른 세부추진과제 26건을 제시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용역사에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 주민 설득 노력도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2026년 7월 1일 목포·신안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통합 로드맵을 설정해서 각 단계별 추진과제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2단계로 무안과의 통합을 이룸으로써 광역단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통합 관련 특별법과 조례에 명문화 한 청주시가 청원군에 양보한 주요 혜택을 포함해 주요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목포·신안 통합시 각종 특례를 추가해서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도록 주민설득 노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은 2차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검토·보완하고 오는 6월 초 상생과제와 미래 비전을 담은 최종보고회를 거친 후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즐기는 7가지 Point!

##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 구성 주목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볼거리 행선지로 화순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4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는 드넓은 들밭에 펼쳐진 유채꽃을 배경으로 대형조형물(벨리콤)이 들어서는, 화순의 명소를 형상화한 봄꽃 전시, 대형 야외 팝업 카페 등을 선보이며, 기존의 획일적인 축제의 틀을 깨는 과감한 시도가 돋보인다.



◆ Point 1 : 대형 '벨리콤'이 상록한 '미림존'

지난 14일 화순 '미림존'에 대형 벨리콤이 상륙했다. 단군신화 속 주인공을 조상이라고 생각해 무작정 화순을 찾아온 벨리콤. '미림존'에는 대형 벨리콤뿐만 아니라 팔주령 장신구(액세서리)를 찬 쪼꼬미 벨리콤도 만나 볼 수 있다. 인생샷 한 방을 노린다면 작년 가을 축제를 뜨겁게 달궜던 '미림존' 시즌 2를 기대해 보자

◆ Point 2 : 금강산도 식후경! 음식 부스와 DJBox가 자리한 '고인돌 음식존'

아무리 볼거리 많고, 즐길 거리가 많아도 먹을 게 없다면 힘이 날 수 없다. 축제장 초입 잔디광장에는 화순 관내 일반음식점 10여 개 업체가 입점하여 관광객의 미각을 유혹한다. 보쌈, 곱탕, 낙지비빔밥, 잔치국수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즐비하다. 허기도 달래면서 DJ박스에서 펼쳐지는 음악과 관객 사연, 레크레이션도 꼭 즐겨보자. 축제장을 찾은 즐거움도 2배가 될 것이다.

◆ Point 3 : 하우스지만 예사 하우스가 아니다! '봄의 향기존'

축제장 입구 게이트를 지나면 우측에 큰 하우스 3동이 있다. 폭 8미터, 길이

40M 규모의 하우스로, 화순군 주요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공간이다.

제1동은 봄꽃을 활용해 화순의 명소인 꽃강길 음악분수대·개미산 전망대를 디자인했다. 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꽃내음과 각양각색의 색감에 눈과 코가 즐겁다.

이 밖에 여러 종류의 야생화와 '2024 다육 가드닝 대회'에 입상한 수준 높은 다육 작품도 감상할 겸 꼭 들러야 할 추천 코스이다.

◆ Point 4 :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넓은 잔디광장 - '패밀리존'

관청바위에 다다르기 전 위치한 '패밀리존'은 큰 잔디광장이다. 규모가 큰 만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기 좋은 공간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하여 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순군에 소재한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 '키즈라라'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화순소방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안전체험 차량 체험이 관심을 끈다.

더불어, 가족과 함께 그늘막 아래에서 편하게 단풍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조성되어 관광객의 편의

를 높였다.

◆ Point 5 : '심+여유=힐링'을 표방한 '물멍존'

관청바위를 지나 제법 경사진 길을 오르다 보면 세상이 잊지않은 풍경을 자랑하는 '물멍존'에 다다른다. 평소 운동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여기쯤에서 숨도 차고 목도 탈탈 하라. 확실히 '물멍존'은 잠시 여유를 갖고 쉬어가기 좋은 위치에 터를 잡았다.

넓은 잔디 위에 자리한 피크닉 매트와 빈백 소파에 앉아 쉼쉼이 흐르는 월곡지의 물결을 바라보고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멍을 때리게 된다. 더군다나 다리 건너 야외 버스킹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음악까지 합하면 진정한 힐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 Point 6 : 올해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핑매바위 소원존'을 찾아가자!

보검재를 넘어 춘양 대신리 방면으로 내려가다 보면 초대형 거석인 핑매바위를 볼 수 있다. 높이 4미터, 둘레 7.3미터, 무게 약 280톤에 달하는 고인돌로, 세계에서 가장 큰 고인돌로 알려져 있다.

핑매바위에는 흥미로운 전설이 있다. 옛날 운주골에서 전국의 내로라하는 바

위를 초청했다. 이 소식을 들은 마고 할머니는 치마에 돌을 싸 들고 한달음에 운주골로 달려갔다. 하지만 일하기 싫어하는 동자승이 닭 울음소리를 내는 바람에 마지막 1,000번째 돌을 못 세우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만 돌을 버리고 발로 차버렸는데 그게 핑매바위라고 한다.

핑매바위 위에 있는 구멍에 왼쪽으로 돌을 던져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다.

핑매바위를 찾아 소원판에 소원을 적고, 운영 부스에서 소원돌을 받아 마고 할머니 조형물에 돌을 던져보자. 혹시 아는가? 멋지게 골인시키고, 올해 꼭 이루고 싶었던 소원도 성취할 수 있을지.

◆ Point 7 : 젊은 감성의 집대성! 축제를 새롭게 해석한 '봄별정원'

봄별정원은 참신한 공간 인테리어로 탄생한 이번 축제의 다크호스다. 사진찍기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겨냥한 포토존은 물론, 유채콜드브루, 풍카롱 등 독특한 소재의 디저트를 선보일 팝업 야외 카페까지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하다.

특히, 도곡에 초대형 '벨리콤'이 있다면, '봄별정원'에는 화순 운주사의 와불처럼 옆으로 누워 편하게 쉬고 있는 미니 '벨리콤'을 만날 수 있다.

신나게 사진 찍고 카페 옆 피크닉 매트에 앉아 한가롭게 쉬다가 지루함이 물러올 때쯤 인근 감태바위에 올라가보자. 촘촘히 밀집된 고인돌 속에서 유독 빛나고 있는 감태바위의 영롱함을 엿볼 수 있다. 감태바위 옆 조형물과 함께 사진도 찍고 인증샷 이벤트에 참여하면, 덤 상품으로 피크닉 돗자리를 받을 수 있어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행재를 누린 것이다.

윤경호/기자

# 보성군, 보성 차(茶)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14년 만의 재회

해외 판촉, 수출 활성화를 통해 기획 상품 제작 발굴 노력

보성군은 지난 3월 2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인문화회관에서 '보성 차(茶) 시음 및 다도 체험행사'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스트리아 한인문화회관 개관 12주년을 맞아 전통 다기 다도 체험과 다양한 보성 차 시음 행사를 진행해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보성 차(茶) 시음 및 다도 체험행사'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하스&하스(Haas&Haas) 매장에서 열린 '보성특차 특별기획전' 이후 약 14년 만에 다시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오스트리아 한인문화회관 전미자 이사장이 주최했으며, 오스트리아 한인문화회관은 보성군의 해외 진출에 있어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은 또 한 번의 오스트리아 비

엔나의 진출을 계기로 앞으로 더 나아가 보성 차가 유럽 전역에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현지인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보성군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전개하며 해외 판촉, 수출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향후 오스트리아 요식업 업체와 연계해 기획 상품을 제작하는 등 보성 차의 세계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2010년 4월, 세계적인 차(茶) 전문 업체인 하스&하스(Haas&Haas)와 보성 차(茶) 수출에 관한 협약식(MOU)을 시작으로 하스 부부를 보성군 녹차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최원영/기자

# 완도 전북·해조류, 전국 최대 박람회서도 단연 인기!

## 수원 메가쇼에 완도군 7개 업체 참가 '전북, 해조류' 등 선보여

완도군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 메가쇼 2024 시즌1'의 전라남도 수산물 판촉 행사에 참가해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수원 메가쇼'는 국내 최대 소비재 박람회로 올해는 지역 농수특산물, 패션, 뷰티 등 250개 사가 참가했으며, 1만 명의 바이어, 5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완도군에서는 관내 7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사)한국전북산업연합회·남도전북연합회에서 활 전복을, 이문삼육오(주)는 김 가공품을, 천지가전복(주)는 순살 전복을, 달스윗(주)는 전복 빵을, 완도다 어업회사법인은 전복 차우더를, (주)바다명가는 미역·다시마, 완도고급바다(어)는 건 매생이 등을 선보였다.

특히 완도군과 (사)한국전북산업연합회에서는 '순살 전복 시식 코너'를 운영하여 전복 손질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순살 전복을 홍보하고, 다양한 전복

요리를 소개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12일 행사장을 찾은 김현철 완도부군수는 "이번 행사가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어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소비 트렌드에 맞는 전복과 해조류를 활용한 다양한 수산 가공품을 개발하고, 판촉 활동에 힘쓰고 있다.

양영울/기자





# 경북도, 기술거래플랫폼 구축으로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스케일업

## 3년간 국비 18억원 확보, 이차전지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초격차(超格差) 이차전지 전략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



경상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국가기술거래플랫폼사업\*의 이차전지 중점산업 분야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3년간 이차전지 관련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한다.

\*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부 R&D 등 축적된 기술, 지

식,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기업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까지 지원하는 사업

해당 사업은 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포함.경남.울산 3개 테크노파크와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 3년간 사업비 34억원(국비 18, 지방비 12억,

기타 4)으로 국가연구개발 결과를 민간에 이전하고 사업화와 투자 및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상북도는 이차전지 관련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경북의 이차전지 소재 생산 및 리사이클링 특화 인프라, 울산의 현대차 중심의 완성형 전기차, 경남의 조선·방산 등 이차전지 연계 유망 산업과 민간의 기술이전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초격차 이차전지 전략 기술 사업화 전주기 플랫폼 구축'을 구축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규모평가 과정에서 경북은 포함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경주·영천의 미래차 소재부품 생산거점, 김천의 드론·자율주행 실증거점, 구미 이차전지 소재 생산거점, 경산 전기차 무선 충전거점 등 관련 전·후방 산업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의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세부 사업내용은 ▲코디네이터를 통한 기술사업화 중개 및 컨설팅 ▲이차

전지 유망 기술탐색 ▲기술 개념증명으로 사업화 성공률 향상 ▲테크노파크 및 민간 거래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 및 글로벌 진출 연계 등이 있으며, 이차전지 산업을 중점 지원(50% 이상)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본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전문 코디네이터를 산업 및 사업화 분야 Two-Track으로 운영하고, 산·학·연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이전 수요기술의 사전·사후 실현 가능성 검증을 거친 핵심 기술이 이차전지 관련 산업에 적용되도록 실효성 있는 기술이전이 기대된다.

최영숙 경제산업국장장은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우수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고, 이차전지산업 생태계를 확충할 수 있게 됐다."며 "기술이전과 사업화로 이차전지 전·후방 산업 시장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대구광역시,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 개최

## 지역 방위의 선봉장인 대구경북 예비군과 함께

대구광역시는 지난 16일(화), 대구 어린이세상 피코리극장에서 예비군의 사기 진작과 지역단위의 방위태세 확립 및 안보의식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는 김형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 박성수 경상북도 안전행정실장, 정유수 제50보병사단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자치단체장, 예비군 지휘관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유공자 표창, 기념사에 이어 결의문 낭독, 예비군이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형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감행 등으로 남북한의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예비군은 지역을 지키는 자주국방의 소중한 자원이며, 지역안보를 수호하는 핵심 전력으로서 지역방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며, "오늘 기념식을 통해 지역 통합방위태세의 확립과 예비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비군의 날은 1968년 4월 1일 예비군 창설일을 기념하고 범국민적인 안보의식 고취를 통한 지역 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매년 4월 첫째 금요일로 지정돼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2022년부터 경상북도와 기념식을 통합해서 개최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특사경, 환경오염 불법행위 저지른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적발!

## 박형준 시장, "시는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고 지속적인 환경수사를 벌여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 대상,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기획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택가 등 도심지 내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단속해 동절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신고 대기배출 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방지 시설 미가동 및 비정상운영 여부 ▲자가측정 미이행 및 공기희석 배출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수사결과 총 26곳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가 2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가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가 2곳이었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적발된 업체 21곳은 모두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로 설치 신고한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공간 등에서 도장·분리작업을 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은 오염도를 낮출 목적으로 출입문을 개방해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했으며, 나머지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미설치한 2곳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분리(샌딩) 작업을 실시해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대부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분리(샌딩) 작업 시 필터가 막히고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중 일부는 도장 작업도 외부 시설을 피해 공장의 구석진 곳에서 해 특사경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사업장/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미신고 대기배출 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대

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시는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고 지속적인 환경수사를 벌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금정구 보건소, 금연 환경 조성 금연자동음성안내시스템 설치 운영

부산시 금정구 보건소는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고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 최초로 금연자동음성안내시스템을 설치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설치 구역은 흡연 민원이 많은 도시철도 부산대역 3번 출구와 구서역 4번 출구 인근 2개소이다.

금연자동음성안내시스템은 공공장소의 금연 구역에서 동작 감지 시 자동으로 금연 안내방송을 송출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시스템이다.

금정구 보건소는 금연자동음성안내시스템 운영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등 갈등을 줄이고 금연 구역 인지율을 높이고자 한다.

향후 금연자동음성안내시스템 설치 지역의 민원 감소 여부 등 효과성을 분석해 추가 및 이전 설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혜숙 보건소장은 "적극적으로 금연 사업을 발굴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의 금연 실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 도시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금정구보건소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클리닉,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금연 캠페인, 공중이용 시설 금연 구역 지도·점검, 흡연 단속 등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김희태/기자



# 청송군, '8282 민원처리'1분기 운영 결과 보고

## 생활 밀착형 서비스 지원으로 모두가 잘 사는 청송

산소카페 청송군에는 전화 한 통이면 달려와 전등 교체, 수도 누수 등 생활 곳곳에 있는 사소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든든한 아빠 같은 존재가 있다. 바로 지난 2023년 1월 처음 선보인 '8282 민원처리' 서비스이다.

'8282 민원처리 서비스'는 청송군에 주민등록 된 모든 가구가 연 4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빈집, 창고, 상가 등을 제외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한한다. 취약가구(65세 이상 단독·부부, 차상위·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회당 5만원 이하의 재료를 지원해주며, 이외의 일반가구는 직접 재료 준비 후에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1/4분기 운영 결과 808

가구 1,738건이 접수 됐으며 이 중 96.8%인 782가구 1,69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기동반이 해결하지 못한 민원은 전문 업체에 직접 인계하여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령층 및 기초·차상위 등 소외계층이 전체 접수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도 참고 살던 소외계층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구 수 대비 이용률은 8개 읍면 중 파천면이 12%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읍면에서도 모두 골고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8282 민원처리팀'은 지난

3월 청송군 시니어클럽, 생활지원사 교육 현장 등을 방문하여 사업 홍보를 했으며, 앞으로 청송군민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8282 민원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요즘 '청송군의 1등 효자는 8282민원처리팀이다.'라는 말을 자주들여 참 뿌듯하다."며 "5월부터는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방충망 수리·보수 접수를 시작한다고 하니 많은 신청을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모두가 잘사는 청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우리음식연구회 '봄을 알리는 산채' 교육 (지역특화식품개발활성화시범)



영양군은 지난 16일(화)부터 영양군 우리음식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봄을 알리는 산채'라는 주제로 지역특화식품 개발활성화 교육을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5회에 걸쳐 실시한다.

영양군우리음식연구회는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관내 여성 학습단체로 영양의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하여 교육용을 통해 지역 향토 음식과 특화 음식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교육 등의 혜택을 나눔 행사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노력하는 단체이다.

이번 교육은 '봄을 알리는 산채'라는 주제로 우리 지역의 산나물을 한식만이 아닌 다른 나라 음식에도 적용해 봄으로써 산나물의 다양한 활용법 및 현 트렌드에 맞는 산나물 요리를 개발 예정이다.

조용완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요즘 각 나라의 대표 음식은 국경을 넘어 '퓨전'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받는데 이에 발맞춰 우리의 식재료를 외국 음식에 적용해 봄으로써 또 다른 매력의 퓨전요리를 지역성이 드러나는 특별한 메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별천지 영양'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 최종 선정

### 국비 60억 원 확보(총사업비 120억 원), 지역주도형 관광 활성화 추진



경북도는 지역 주도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에 영양군 '별의별 이야기, 영양'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체부 공모사업은 지역의 특화 소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에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체부가 2028년까지 5년 동안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영양군은 '별의별 이야기, 영양'을 주제로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의 청정한 반딧불 생태관광지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영양국제밤하늘보호원은 국제밤하늘협회가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공원으로 지정했다.

영양군은 밤하늘 소재 브랜드 개발, 디지털 천체투영관 '오로라돔' 설치, 별의 정원 조성, 커뮤니티 공간 '별별 스페이스' 조성, 별의별 어드벤처 체험 행사 개발 등 특색 있고 매력적인 관광지를 조성해 관광객을 맞는다.

경북도와 영양군은 연내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8년까지 핵심사업과 연계협력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와 각종 단체(영양축제관광재단, 영농조합법인 수하, 반딧불이 보존회 등)가 협력해 영양군을 대한민국 유일의 밤하늘 특화관광지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사업이 2020년 포항시, 2021년 영주시에 이어 2024년 영양군이 세 번째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도내 관광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컨설팅과 영양군의 내실 있는 계획수립 등이 시너지를 발휘한 값진 성과다.

이번 공모사업은 2021년 이후 3년 만에 재개해 열린 경쟁을 펼쳐 경북 영양군을 비롯해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등 3곳이 선정됐다.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자원 발굴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맨발걷기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세요

### 안동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레드일라이트 힐링로드 맨발로(路) 조성 인기...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보건학박사 김문년>

최근 맨발걷기의 효능이 알려 지면서 맨발 걷기 붐이 일고 있다. 맨발걷기는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치유방법 중 하나다. 지자체마다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확산하다 보니 맨발걷기 운동이 이제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신발과 맨발의 운동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맨발 걷기의 효과를 입증했고, 맨발걷기는 미국인들에게 몸을 일깨우는 효율적인 운동법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WHO(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장수비결은 걷기라고 했다. 지역주민들의 심신 치유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길 조성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건강도시연맹에 가입돼 있는 안동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성희여고 앞 강변 둔치에 도심 속 바쁜 시민들의 체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레드일라이트 힐링로드'를 시범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는 낙동강 양안 5.3km 구간에 '안전한 힐링로드 맨발로(路)'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안동시 낙동강변 레드일라이트(붉은모래) 힐링 로드>

그리고 지난해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에서도 수련생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퇴계공원에 '레드일라이트 맨발걷기 길'을 조성해 교육생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는 신도시 조성시 도청 앞 천년 숲에 황토길을 조성했다. 올해는 도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레드일라이트 힐링 로드'를 조성하여 주민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경북도청 천연 숲 레드일라이트(붉은모래) 힐링 로드>

발은 제2의 심장으로 불린다. 신체 각 주요 장기의 신경이 가닥가닥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방병원은 물론, 종합병원에서도 항암치료 환자들에게 적정시간의 맨발걷기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맨발걷기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만은 않다. 20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족저근막염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만큼 맨발로 걷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딱딱한 장소에 무리하게 걷다 보면 발바닥에 과도한 체중 부하가 걸려 족저근막염에 걸릴 수도 있고. 관절이나 인대 등 근골격계에 손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깨진 유리조각이나 못과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손상을 받을 수 있고, 땅속 벌레에 물리거나 동물, 새의 배설물 등으로 인해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다.

윤근수/기자

# 상주시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개소식 개최

###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상주시를 위한 자율방범대 역할 기대 강영석 상주시장, "상주시민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상주시를 함께 만들어 줄 것" 당부

상주시 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16일(화), 상주시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에서 내빈 및 읍면동 방범 대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상주시 자율방범연합대는 정기적인 순찰·점검 활동을 통한 헌신적인 방범 및 치안 활동으로 상주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예방에 기여, 안전한 지역사회의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행사 시 질서유지 활동, 청소년 선도 활동, 환경정화 봉사활동 등을 하며 상주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재철 자율방범대장은 "사무실 개

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는 강영석 시장님, 안경숙 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대원 모두가 더욱더 협력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폭넓은 방범 및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민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치안유지, 범죄예방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며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는 사명감

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상주시를 함께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상주시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이 개소됨으로써 자율방범대원들 간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형성, 결속력 강화, 다

양한 봉사활동의 중점적인 역할과 소통의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현/기자

# 2024 예천의 봄, 회룡포 봄꽃축제 개최!

### 김학동 군수, "유채꽃과 청보리의 아름다운 풍경, 모래사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기며 육지 속 섬마을 회룡포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2024 예천의 봄, 회룡포 봄꽃』축제가 오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3주간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 마을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예천군은 봄꽃축제를 위해 회룡포 일원에 유채꽃밭 2.7ha와 청보리밭 2ha를 조성했으며 축제 기간에는 모두 만개해 아름다운 색의 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축제 기간 중 주말에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먼저 모래놀이 피크닉, 모래 낚시터, 백사장 모래조각, 모래성 깃발 게임 등 백사장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미로공원 보물찾기와 프리마켓,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어린이를 위한 버블·마술쇼 공연도 펼쳐진다. 또 푸드트럭, 순대 포차 등 다양한 먹거리로 먹는 즐거움도 더한다.

또한 회룡포 마을 입구에는 청룡의 해를 맞아 가로 10m, 세로 3m의 용모양 모래 조형물을 설치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토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유채꽃과 청보리의 아름다운 풍경과 모래사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기며 육지 속 섬마을 회룡포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 한울6호기, 발전재개

### 한울본부 관계자, "한울본부 해당 신호선 정비를 완료해, 앞으로, 주급수펌프 속도제어 다중화 설계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지난 4월 1일 증기발전기 저수위에 의해 발전정지된 한울6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지난 16일 발전을 재개했으며, 17일 09시경 정상운전 출력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원자로 정지 원인은 주급수펌프의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신호선이 손상되어, 이로 인해 증기발전기에 공급되는 유량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울본부는 해당 신호선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주급수펌프 속도제어 다중화 설계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경북, 황사 위기경보 '주의' 발령

## 고비사막~내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 영향,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노약자 등 실외 활동 자제, 가축·시설 작물도 황사 노출 방지 점검해야

고비사막~내몽골 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 유입의 영향으로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경북 지역에 4월 17일 02시 기준으로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황사에 취약한 계층

은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황사 대비 행동요령을 지도해야 한다.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황사·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막을 수 있는 KF94 또는 KF80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조현애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황사에 의한 미세먼지 농도는 기상 여건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기상청의 예보를 잘 살피고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와 국민 행동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단계	발령 기준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 발생</li> <li>○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매우나쁨(일평균 PM10 150<math>\mu\text{g}/\text{m}^3</math> 초과)" 예보 시</li> </ul>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li> <li>※ PM<sub>10</sub>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math>\mu\text{g}/\text{m}^3</math> 이상 2시간 지속</li> </ul>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li> <li>※ PM<sub>10</sub> 시간당 평균농도가 800<math>\mu\text{g}/\text{m}^3</math> 이상 2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li> </ul>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li> <li>○ 황사로 인한 재난사태 선포기준* 도달 예상시</li> <li>※ 미세먼지(PM<sub>10</sub>) 1시간 평균농도가 2,400<math>\mu\text{g}/\text{m}^3</math> 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li> <li>※ 미세먼지(PM<sub>10</sub>) 1시간 평균농도가 1,600<math>\mu\text{g}/\text{m}^3</math> 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li> </ul>

# 부산시·새출발기금(주),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

## 박형준 시장, "어려운 경영환경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향후 다양한 형태 협업사업을 추가 발굴, 우수협력모델을 만들어 갈 것"

부산시는 지난 17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이하 새출발기금과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 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양 기관의 주요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체결되는 이번 협약은 새출발기금(주)의 재정적 지원을 활용해 고금리·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복지를 향상하고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부산

소상공인의 새출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데 상호 협력한다. 또,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채널로 새출발기금(주)의 재무조정 제도 홍보와 안내에도 적극 협력했다.

시와 새출발기금(주)은 첫 협업사업으로 기존 추진 중인 시 소상공인 행복복지사업인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대폭 확대했다.

새출발기금(주)이 제공하는 1억 원의 사업비 등을 투입, 소상공인 종합건강검진비용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 현실성을 확보하고, 지원 규모도 400 ~ 8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지난해 시는 사업수행기관인 부산

경제진흥원과 이 사업을 추진해 1인당 20만 원씩 소상공인 400명의 종합건강검진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양 기관은 시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플랫폼인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다양한 재기지원사업과 협력할 수 있는 우수협력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해 협업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준비와 같은 기회"라며, "전국 최초로 부산시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뜻을 함께해주시는 새출발기금(주)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 다양한 형태 협업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우수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 봉화군,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 캠페인' 적극 추진

## (주)태흥건설(대표 강인숙), 성금 300만 원 기탁 박현국 봉화군수, "공무원부터 솔선에 만 원 이상 기부에 적극 동참해 저출생 극복의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봉화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온국민이 함께하는 만원 이상 기부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금 모금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체를 비롯해 일반 군민까지 적극 동참해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모금된 성금은 추후 저출생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9일에는 (주)태흥건설(대표 강인숙)에서 봉화군 1호로 저출생 극복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부자는 전용 모금 계좌 농협(705-01-190814) 또는 대구은행(505-10-116204-8), QR코드를 활용해 참가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북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모금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공무원부터 솔선해 만 원 이상 기부에 적극 동참해 저출생 극복의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 주식회사 극동 안동시장학회 장학기금 전달

##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1천만원 기탁 권기창 안동시장, "정성이 깃든 장학기금을 기탁해 주신 뜻깊은 마음에 감사하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지역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안동시장학회에 (주)극동 오순영 회장이 지난 16일, 시장실을 방문해 1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1989년 설립한 (주)극동은 항상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뢰받는 기업, 만족을 주는 기업, 더불어 자부심을 가지고 장인정신으로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안전한 물, 깨끗한 물, 함께하는 건강, 한 물을 지키기 위해 고품질의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물탱크, 스테인리스 라이닝의 특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물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이다.

(주)극동은 제품 관련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해 2022년 6월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아 다양한 형태와 재료의 울타리, 창 및 외벽패널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전국 각지에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오순영 회장은 "기업가로서 30년 이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우

수제품을 개발·공급해서 물 산업 성장 및 경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는 것과 더불어 이번 장학기금 기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며, 적은 금액이나마 지역인재육성에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정성이 깃든 장학기금을 기탁해 주신 뜻깊은 마음에 감사하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의성군,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김주수 의성군수, "주민자치회에서 계획·재안 프로그램 직접 운영하면서 자치 역량을 성장시키고, 주민 주도 주민자치가 정착되는 계기 되길 기대한다."고 밝혀

의성군은 경상북도 23개 시·군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공모한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에 15개 주민자치회 사업이 선정되어 60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공모사업은 지역 활성화와 주민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주민 참여 및 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의성읍을 달리는 청춘열차(의성읍) ▲전문가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교육(단촌면) ▲행복

한 어울림 가족 풍물여행(금성면) ▲주민자치회 활성화 디딤돌 교육(단밀면) ▲주민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안계면) 등 15개 사업으로 각 주민자치회에서는 5월부터 참여자를 모집하여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자치회에서 계획하고 제안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면서 자치 역량을 성장시키고,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 청소년이 주도하는 축제의 장, 대구 청소년어울림마당 개막!

##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꿈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곳

### 2024년 대구광역시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막식

2024. 4. 20.(토) 14:00~17:00  
2.28기념중앙공원 청소년광장

개막식 / 청소년 공연 / 체험·참여부스

2024년 대구광역시 대표 청소년어울림마당 연간일정

일정   5. 18.(토)	청소년문화축제
장소   동성로2아트스퀘어	- 청소년대상 시상식
일정   5. 19.(일)	개막식
장소   대구광역시	- 축하공연 및 체험부스
일정   8. 22.(토)	세계청소년의 날
장소   동성로2아트스퀘어	- 축하공연 및 체험부스
일정   9. 29.(토)	청소년어울림마당
장소   동성로2아트스퀘어	- 무대공연 및 체험부스
일정   10. 26.(토)	청소년문화페스티벌
장소   국제보상문화재단광명	- 청소년들이 꿈이랑
일정   11. 16.(토)	청소년어울림마당
장소   동성로2아트스퀘어	- 개막행사

### 개막식

14:00 ~ 15:00

- 축하공연
- 개막 세리머니
- 개막선언

### 체험·참여부스

15:00 ~ 17:00

- ※ 개막식 진행시간 제외
- ※ 청소년들이 체험·참여 부스

### 청소년 무대공연

14:00 ~ 17:00

- 청소년들이(팀) 공연 (댄스, 노래, 만드 등)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구지역 내 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축제) 일정은 "대구청소년.NET" 사이트 확인

주최 | 대구광역시 | 후원 |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문의 | 대구청소년활동진흥센터 053-659-6213 | 홈페이지 | www.active.daeguyoung.net

대구광역시 주최하고 대구청소년 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2024년 대구 대표 청소년어울림마당 개막식'이 오는 20일(토) 오후 2시, 2·28기념중앙광원에서 열린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이 학업에서 잠시 벗어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가 문화축제의 장을 상시 마련해 주기 위한 행사로서 청소년 기획단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 홍보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올해 주요 어울림마당 행사는 ▶4월 개막식, ▶5월 청소년문화축제, 성년의 날 기념식, ▶8월 세계청소년의 날, ▶10월 행복페스티벌 등 총 8번의 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2·28기념중앙광원에서의 개막식 이후 5월부터는 동성로 2아트스퀘어에서 진행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과 청소년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막식의 슬로건은 '개화:꿈을 꽃 피우다'로, 청소년어울림마당이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꿈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자유로운 공

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막식은 청소년 동아리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 세리머니 등으로 꾸며지며, '바다유리 키링만들기', '업사이클링 스투키 심기', '우드아트, 향수 만들기', '거울, 핀버튼 만들기', '비즈팔찌, 반지 만들기', SNS 해시태그 추천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소년어울림마당에 청소년들의 문화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청소년 문화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서울시, 장애인복지 예산 역대 최대 1조6천억원... 복지서비스 늘리고 자립 돕는다

### 사회활동·이동 편의 돕는 대중교통비 지원 등 1853억원 투입,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등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36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총예산(45조 7,405억원)은 전년 대비 1조 4,500억 원가량 줄었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1,263억원(8.4%) 늘려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차질 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기조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21년 이후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은 평균 11%씩 확대됐으며 총예산 중 장애인 관련 비중도 지난해 3.2%에서 올해 3.6%로 늘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거주시설 환경과 이동편의 개선, 맞춤형 상담·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세심한 관리와 고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63만명)의 4%에 달하는 38만 9,592명(24년 3월 기준)으로 올해 예산 1조 6,364억원은 장애인 1인당 420만 원가량 지원 가능한 규모다.

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 16만명(41%), 청각장애인 6만4천명(17%), 시각장애인 4만1천명(10%), 뇌병변 3만9천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7천명(9%)이다.

장애 원인은 88.1%가 질병·질환(56.0%), 사고(32.1%) 등 후천적 요인으로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초고령화 시대에 장애인 구 비중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장애인활동지원금'으로 작년보다 566억 원 늘어난 6,321억 원이다. 전체 장애인예산의 38.6%에 달하는 금액. 수급자는 2024년 기준 2만 6,176명이며 학업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이 전체 수급자의 36.7%를 차지해 청년 장애인의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가도 지난해 시급 1만 5570원에서

1만 6150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금 외에 최중증 장애인(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 2,668명에 대해서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2,407명보다 늘어난 규모다.

한편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 대해 3년마다 재정지정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실적,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우선 6~8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지정 심사에 반영 계획이다.

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도 총 44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시설을 사생활 보호 기능 등을 높인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실 등을 확충한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올해 총 4개 장애인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에 35억원을 투입한다. 2028년까지 장애인 시설 31개소 리모델링을 끝낼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장애인 목소리를 반영한 체험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 활동 운영에도 4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이동 편의 지원에도 지난해보다 93억 원 늘어난 1,853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개월간 66만 명에게 150억 원을 지급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도 작년보다 11억원 늘린 160억 원을 배정해 이동은 물론 장애인·민원처리 등에도 동행한다.

이 외에도 약국,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에도 5억 원을 투입, 장애인의 접근성은 물론 유아·어르신들의 이동편

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상담부터 돌봄, 맞춤형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장애인복지관 확장과 맞춤형 체육시설 등 거점공간 확충에도 249억 원을 지원한다.

우선 '시립서대문로아인복지관'(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별관 건립에 72억 원을 투입한다. 2007년 개관한 5층 규모 본관 옆에 9층 규모 별관 건물 신축해 청각·언어장애인 종합서비스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준공해 하반기부터는 이용 가능하다.

별관 건물은 청각·언어장애인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한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다목적 강당·영상스튜디오실, 수영실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건립 35년이 넘는 '시립발달장애인지원관'(동작구 여의대방로20) 별관 신축에도 32억 원을 투입,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이 복지관은 시설 이용 인원과 프로그램이 늘면서 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신축 별관에는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완화하기 위한 쉼터(도전적 행동의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 공간), 하프스페이스(쉼터 프로그램으로 도전적 행동 경감 발달장애인에 다양한 경험 제공 공간) 등을 배치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내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가능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 연수·교육 등 복합시설인 '어울림플라자' 건립(109억 원), 장애인 체육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반다체육센터' 건립(36억 원)도 추진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 6천억원의 장애인 복지예산 편성을 마쳤다"며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경산시, 국민안전의 날 맞아 시민 중심 안전사고 예방 추진 주력!

### 재난 취약계층(노인·어린이·장애인 등) 대상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 배부 -조현일 시장,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시민의 행복과 경산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 구조 손수건 사용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힘



경산시는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아 화재 취약계층 안전대책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시설에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을 배부하며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발 벗고 나섰다.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산지역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재난 취약 거주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22개소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 ▲그로울공동 생활가정 4개소 ▲지역 아동센터 22개소 ▲다문화돌봄센터 4개소 총 60개소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을 배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3년 경산시 화재 발생 현황은 201건(부주의 88건, 전기적 요인 34건, 기계적 요인 20건 등), 인명피해 20명(사망 4명, 부상 16명), 재산 피해 1,154백만원으로 집계됐다.

화재 사고 사상원인 60%가 연기·유독가스 흡입으로 발생했다.

화재 현장에서의 사망 원인은 대부분 질식사다. 통상 유독가스는 3분 이상 흡입하면 심정지가 오고 5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생긴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대부분 일산화탄소로 혈액 속 산소 운반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뇌에 산소 공급을 막는다.

또한, 연기가 위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질식사를 피하기 위해선 고개를 숙이고 젖은 손수건이나 옷가지 등을 이용해 유독가스 흡입(열이 폐로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현일 시장은 "모든 시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시민의 행복과 경산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재난 취약계층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구조 손수건을 사용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송광삼/기자

# 영천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

### 재정집행의 신뢰와 투명성 제고, 수범사례 선정까지

영천시는 지난 12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김선태)과 함께 2023년 한 해 동안 영천시가 운용한 세입·세출 예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선태 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행정과 회계분야 전문가 3인으로 구성했으며, 검사기간 동안 예산집행 및 재무운영의 적정·적법성을 검토해 감사의견서를 영천시에 제출하고 이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의 근거가 된다.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영천시의 세입 결산액은 1조 4,153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375억 원, 이월금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 잉여금(이익)은 465억 원이며, 총 자산은 4조 9,015억 원으로 파악된다.

이번 결산검사 상 영천시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한 수범사례로는 (주)화산, 로젠(주)의 2,509억 원 투자유치, 영천 별마마를 미국 수출 등이 꼽히고 있으며, 특히 2023년도 상반기 경북도평



가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순세계 잉여금 42% 감소, 이자수익 역대최고액 달성 등은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수립과 철저한 자금관리, 적극적 행정집행의 결과로 해석된다.

영천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제1차 정례회 승인을 받아 영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군위군,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체계 구축

### 새싹지킴이병원 지정

- 새싹지킴이병원 지정  
대구 군위군은 학대피해 아동 및 보호대상 아동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칠곡경대정신건강의학과위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위기아동 조기 발굴, 의료자문 등을 한다.

칠곡경대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2018년에 개소해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를 운영 중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학대피해아동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군위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영양군, 상반기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 실시

### 오도창 영양군수,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특성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군민이 감동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영양군은 지난 17일, 수비면 수하2리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적, 건축, 복지 등 민원상담과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서비스, 만성질환 관리 및 상담, 영양군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 등 민관이 함께하는 종합적인 민원서비스로 이루어졌다.

'찾아가는 종합민원서비스'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찾아가서 군민과 공감·소통하는 민원서비스로 행정민원의 군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영양군의 민원정책 중 하나이다.

고령인구가 많고 이동권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서비스, '혈압측정 및 만성질환 관리' 상담, '보건 서비스 및 자원봉사자



터의 '이불세탁' 서비스는 매우 인기가 높다.

수하2리 마을주민 김○○씨(76세, 여)는 "평소 궁금했던 지적과 건축관련 민원을 군으로 찾아가지 않고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해주니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방충망 수리를 위한

접수까지 해주신니 마을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특성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군민이 감동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산소카페 청송에서 "리셋"(Re:set)

### "물러가라! 코로나" 청정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 재충전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재선정된 주왕산과 주산지, 세계지질공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천혜의 신성계곡, 백일홍 만발한 청송의 새로운 랜드마크, 산소카페 청송정원...

산소카페 청송군은 일상에 지친 삶을 재충전하는 생태힐링관광의 대명사입니다.

리셋으로 리프레쉬!  
힐링은 역시 산소카페 청송군입니다.





# 강원도, 제13회 수산인의 날 강원특별자치도 행사 개최

## 김 지사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위해 세 가지 선물 드릴 것”

강원특별자치도는 법정기념일인 수산인의 날을 기념해 4월 17일 오전 10시에 삼척체육관에서 “제13회 수산인의 날 강원자치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삼척시와 삼척수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열린 어촌, 젊은 발걸음, 새로운 수산 강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 도내 해면·내수면 수산인들과 관계 기관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와 삼척시 수산자원센터에서 생산한 수산종자 15만마리(뚝지 5만, 해삼 10만)를 삼척 소재 삼척항과 갈남항에 방류하며, 바다 생태계의 풍요를 기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어업인은 새벽부터 조업에 나서지만 유류비와 인건비는

늘어나고 어획량을 줄어든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업인을 위해 도에서는 세 가지 선물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첫 번째로 도에서 어업용 면세유 비용의 45%를 지원해 드리는 데 앞으로 55%까지 확대해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 드릴 것과 두 번째로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을 추가로 건립해 외국인 어업근로자 고용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드릴 것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해양수산국을 만들어 어업인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임을 전했다.

이외에도 도에서는 살기 좋고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어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2023년에는 강릉 안인진, 삼척 대진, 고성 공현진, 양양 후진 4개

소가 선정되어 453억 원의 예산이 투입중이며, 2024년에는 삼척 갈남항, 고성 오호항, 양양 수산항 3곳이 선정되어 396억 원을 확보했다.

강호철/기자



#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자원봉사단 출발!

## 제2기 ‘여해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다시 찾고 싶은 아산 만든다.

아산시는 16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자원봉사단인 제2기 ‘여해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여해서포터즈’는 이순신 장군의 자(字)인 ‘여해’를 따서 명명됐으며, 발대식에 참석한 300여 명의 열정적인 ‘여해서포터즈’가 축제 기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준비를 마쳤다.

이날 발대식은 선서문 낭독, 축제 소개, 자원봉사자 직무교육 순으로 진행이 됐다.

이 자리에서 제2기 ‘여해서포터즈’ 대표 2인(대한적십자사충남지사아산봉사관 허준옥, 유원대학교시소프트웨어학과 김영현)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은 선서문을 통해 “제2기 ‘여해서포터즈’ 자원봉사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성웅 이순신축제’를 맞아 1,057명으로 구성된 제2기 ‘여해서포터즈’는 축제 기간에 안내·홍보 및 미아보호, 통역(영어, 중국어, 일본어), 체험부스 운영, 환경정화, 무대지원, 장애인 관람객 안내, 드론촬영 등 행사 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백의중군길걷기대회’, ‘백의중군마라톤대회’, ‘전국노뜨기대회’, ‘궁도대회’ 등 축제 현장 곳곳에서 전문 분야별로 나뉘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박경귀 시장은 “작년보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모여 주셨다. ‘성웅 이순신축제’가 다채롭고 풍요로워진 만큼 올해 더 조직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시에서도 자원봉사 장소와 분야별로 봉사반장을 지정해 현장에서 어

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5일 동안의 축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해서포터즈’ 여러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이순신종합운동장, 현충사, 온양온천역, 곡교천, 온양민속박물관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김민호/기자



# “충남을 세계 속 역사문화관광도시로”

## 김태홍 지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주년 기념행사서 유네스코 추가 등재 등 지원 의지 밝히



김태홍 충남도지사가 충남을 세계 속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공주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열린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및 비전 선포식에서 “충남은 고려 초 최대 규모의 왕실사찰인 천흥사지 발굴과 내포권역 천주교 성지 복원 등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며 “이제는 세계 속 역사문화관광도시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발굴과 보존을 넘어서 역사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를 만들면 지역 관광산업과 관광도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며 “매년 160억여 원을 투입

해 유네스코 추가 등재 등 연구원의 사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무령왕릉 이후 최대의 발굴 성과로 일컬어지는 ‘공주 수촌리고분군 발굴’ 등을 통해 백제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공주 수촌리 고분군은 청동기시대 집터, 초기철기시대 무덤, 백제 덧널 무덤과 굴식돌방무덤을 발견한 곳으로,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유적지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2511명의 미(未)서훈 독립운동가를 찾아내, 잊혀지고 묻혀있던 충남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도 발굴은 물론, 이기하 장군 묘지석 반환 등 해외기관 소장품을 기증받는 첫 사례를 만들어 내며 문화유산을 찾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새단장을 마치고 이번에 재개관한 충남역사박물관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신미통신일록’을 비롯해 3만 7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재개관 기념 특별전으로는 ‘조선역대 인물초상화첩’ 영인본 기획 전시를 마련했다.

일본 덴리대 도서관 소장 화첩 영인본에 대한 특별전으로, 충남 명현 37

인 46점의 초상화를 볼 수 있다.

도와 연구원은 특별전뿐만 아니라 오는 18일 천안 상명대 컨벤션센터에서 향토사 대축제, 19일부터 도청 본관 지하 1층에서 연구원 성과 전시회를 개최한다.

개원 20주년을 기념하는 마지막 행사로는 25일 국립공주박물관 강당에서 공주 수촌리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전 선포식에서 연구원은 지난 20년의 성과와 반성을 통해 참석자들과 함께 역사문화 연구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김 지사는 “20주년에 맞춰 새단장한 박물관은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유물을 바탕으로 ‘충남의 정체성을 담은 그릇’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충남의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주년 기념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낙중 연구원장, 최원철 공주시장,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조한희 한국박물관협회, 역대 연구원장, 도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정근/기자

# 태백시, ‘천상의 화원, 금대봉 야생화 시티투어’ 운영

## 태백이 안겨준 여름 선물 금대봉·대덕산 야생화 자연 해설

태백시는 오는 4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5개월간 시원한 태백에서 여름철 야생화를 만끽할 수 있는 ‘천상의 화원, 금대봉 야생화 시티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천상의 화원 금대봉 야생화 시티투어는 태백 대덕산·금대봉 시티투어버스 프로그램과 태백산국립공원에서 지원하는 야생화 자연해설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하는 시티투어 상품이다.

해당 시티투어는 오는 4월 27일부터 5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10시에 태백역에서 출발해 두문동에서 검룡소까지 자연환경 해설사와 동행하며 야생화 탐방, 숲길 맨발 걷기, 야생화 빙고 게임 등을 함께하는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이다.

금대봉은 해발고도 1,418m에 위치하고 있으며 59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이 꽃망울을 터트리며 장관을 연출하고, 대성산포플러 같은 멸종 위기 야생식물 5종과 한국특산식물 28종이 분포되어 있어 천상의 화원으로 불리는 매력적인 관광지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야생화를 만끽할 수 있는 천상의 화원 금대봉·대덕산 야생화 시티투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앞으로 태백의 자연을 발굴 및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미래 무형유산” 충북의 콘텐츠로 육성한다

## 사라져가는 충북의 무형유산 발굴 및 연구 선도 ‘금년 5개 사업 추진’



충청북도도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무형유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에 연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미래 무형유산 발굴이란 가치 있는 비지정 근현대 무형유산을 연구하여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2024년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은 총 5개 사업 △도내 양잠 산업의 전반기 조사 연구하는 ‘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 △청주 ‘밀원지 조성’과 ‘꿀벌치기’ △충주 ‘상여제작과 상·장례 문화’ △제천시 일

담배 재배 및 건조 기술에 관한 ‘염연초 재배와 건조 기술’ △괴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던 ‘마을 풍수형국’과 마을제당’이다. 그 중 특히 주목되는 사업은 청주의 ‘밀원지 조성’과 꿀벌치기’와 충주의 ‘상여제작과 상·장례 문화’이다.

청주 ‘밀원지 조성’과 꿀벌치기’는 기상이변의 확대로 꿀벌의 집단 실종 및 폐사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전통 양봉 기술인 “꿀벌치기”에서 찾는다. 밀원지는 가을 매밀밭으로 유명한 청주 낭성면 추정지이다. 지난 3월 추정지에 꿀벌이 가장 좋아하는 밀원식물인 유채

꽃을 한가득 심어 밀원지를 조성했다. 다가오는 5월 추절리에는 유채꽃 사이를 노니는 꿀벌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꿀벌 개체 수를 늘리는 것은 꿀벌이 살기 적합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꿀벌치기’가 단순 농업 생산 활동을 넘어서 자연 문화적으로 재평가 받아야 하는 문화유산임을 밝힐 계획이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 마을에서는 고인에게 예우를 다했고, 유족과는 아픔을 나눴다. 충주 ‘상여 제작과 상·장례 문화’는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슬픔을 나눴던 전통 장례 문화에 기반했다. 병원에서 장례식을 하는 문화가 정착하면서 전통 상여뿐 아니라 상여소리, 행렬 등은 이제 보기 힘들게 됐다. 이번 충주 ‘상여 제작과 상·장례 문화’는 전통 상여에서 근·현대 꽃상여 변화 모습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장례 방식과 문화를 지관, 상여장(喪輿匠), 장례지도사 등 인터뷰를 실시하여 다각도로 조망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청주의 출산문화, 진천의 숲 생산 등 각 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미래 무형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근현대 무형유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며 “과거와 미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 사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 인천시 인천경제청 글로벌 시장 진출 위해 보완점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 인천경제청, CES 2024 참가 인천 기업들과 간담회 개최...의견 청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윤원석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CES 2024'에 참가한 인천지역 기업들과 간담회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매년 1월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로 전 세계 신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이다.

간담회는 윤청장과 CES 2024의 인천 참가 기업 중 10개사 관계자들이 참

석, 점심 식사를 겸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브라운 백(Brown Bag)' 미팅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 기업 다수는 CES 참가가 고객이나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현장에서 글로벌 진출을 위해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인천경제청이 스타트업 참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길 바랐다.

윤청장은 간담회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민간 기업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CES 참가 및 후속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본 글로벌(Born Global)' 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인천 기업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인천경제청은 △CES 2024 인천 스타트업의 전시 참가와 △CES 혁신

상 수상을 지원했으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유일하게 △CES 메인 전시홀인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을 운영,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인 인천의 위상을 높였다.

인천경제청은 CES 2025 전시회에도 △IFEZ 홍보관을 조성해 인천 스타트업의 실증기술 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CES 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파크 참가, △CES 혁신상 수상 지원, △네트워킹 부대행사 기획 등을 통해 참가 기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CES 참가를 기획해 나갈 계획이다.

심순옥 인천경제청 스마트시티과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이 잘 반영되고 인천의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CES 참가가 되도록 체계적인 행사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중남/기자

# 한국증권형토큰협회, 차세대 투자자산 토큰증권... "STO코인 2차 에어드랍"

## 차세대 투자자산으로 주목받는 토큰증권으로 이벤트 신청자 모두에게 STO코인 10~1000개를 무료 지급할 예정

한국증권형토큰협회(KSTO협회)는 오늘 "비트코인이 급등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인 가운데, 차세대 투자상품으로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O가 언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KSTO협회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토큰증권의 국내 연착륙을 위해 설립했으며, 지난해에는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 STO코인을 출시하고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KSTO협회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증권형코인 STO란?

STO란 실물자산을 증권화하여 코인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정부 주도하에 제도권 편입이 진행 중인 중요 미래 투자 시장이며,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제체계'를 발표하면서 증권형코인의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Q STO코인의 발전 가능성은?

토큰증권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금

융시장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다음'으로 꼽히고 있는 블루오션 시장으로, 오히려 한국은 늦은 감이 있다. 비트코인도 처음 출시한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저평가된 것처럼, 작년에 비트코인과 STO코인은 유사한 추가 흐름을 보인 것을 보면 증권형코인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Q STOtoken의 현재 상황은?  
STO코인의 1차 프라이빗세일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후 LBank거래소에서 상장됐으며, 현재 2차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Q 에어드랍 이벤트 내용은?  
현재 '100%당첨 STO코인 무료지급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벤트 참여자 모두에게 STO코인 10~1000개를 랜덤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방법은 '한국증권형토큰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페이지로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이벤트는 STO가격이 0.1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한정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재은/기자

윤타용/기자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계획 변경 패스트트랙 승인! 인프라 구축 속도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신청 5개월 만에 승인 고시

포항시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이차전지 양극재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입주 예정 기업의 투자 진행에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제17차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했다.

이는 지난 11월 8일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국토교통부에 17차 변경을 신청한 지 5개월 만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됐다.

시는 이차전지 기업 및 데이터센터 조기 입주를 위해 경북도, LH 포항사업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항지사 및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또한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기반 시설 확충과 규제개선 등을 적극 건의해 정부 맞춤형 지원 정책에 이어 제17차 변경을 패스트트랙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이러한 성과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이차전지 기업 및 데이터센터의 조기 투자를 위한 국무조정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뒷받침됐다.

이번 제17차 산단 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업종 추가, 용수공급 계획, 오·폐수처리계획, 전력 공급계획 변경 등이다.

우선 이차전지 기업과 데이터센터

투자 예정 부지에 제조업(C20121, C23, C24, C28)과 정보통신업(J61, J62, J63) 업종을 추가해 신속한 입주 및 확장이 가능해졌으며, 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추가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해 오는 2031년부터 공업용수 2만 1,000톤을 추가 공급하고 2단계 배수지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이차전지 기업들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 처리수를 공공해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지하관로와 중계펌프장 신설 계획이 추가됐으며, 전력 추가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내 공장변전소 신설 및 선로용량 증대 등도 반영돼 입주 예정 기업의 원활한 투자 진행과 국가산단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이달 안으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 조기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덕 시장은 "이차전지 기업 및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투자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 기관의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계획 변경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된 것에 감사된다"며, "이차전지 기업들의 조기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포항을 글로벌 이차전지 선도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교육청, 몽골 총괄교육청과 R컴퓨터 나눔 협약식 가져

칭기즈칸의 나라 몽골에도 경북교육의 따뜻함 전한다  
임종식 교육감, "R컴퓨터뿐만 아니라 경북교육청의 발전된 에듀테크 노하우도 전수해 몽골 학교 정보화 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지난 16일,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몽골 총괄교육청(청장 남 오치르, 차관급)과 따뜻한 경북-R컴퓨터 나눔 협약식을 했다. 몽골 총괄교육청은 교육 분야 정책 개혁을 위해 2022년에 신설된 총리 직속 기관으로, 2027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 디지털 기기 8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학교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이 초과한 디지털 기기를 학교에서 수거해 이를 재자원화한 R컴퓨터를 개발도상국에 기증하는 국제 나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몽골과의 협약에 앞서 과테말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등 R컴퓨터 지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과테말라 184대의 R컴퓨터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중앙아프리카공화국 781대 지원 등 총 965대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에티오피아와 몽골에 R컴퓨터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8명이 경북교육청에서 공부하고 있을 정도로 몽골은 우리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나라다"라며, "R컴퓨터뿐만 아니라 경북교육청의 발전된 에듀테크 노하우도 전수하여 몽골 학교 정보화 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2024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딸기 따기'체험 '애들아, 딸기밭이 완전 소방차야! 하하하'

성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지난 16일(화), 간식으로 먹는 새콤달콤한 빨간 딸기, 다양한 감각을 이용하여 탐색하고 직접 따 먹을 수 있는 '딸기 따기' 체험활동을 했다.

사전활동으로 식물들이 주는 즐거움과 이로운 점을 알아보고, 식물이 자라기 위해 먹는 것은 무엇이 있으며, 딸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딸기 따는 방법, 딸기 색종이 접기, 버스 안에서의 안전교육 등을 했다. 딸기밭에 도착한 OO는 "애들아, 딸기밭이 완전 소방차야~ 엄청 빨개""와! 정말 왕딸기다~ 이거는 아기딸기인데... 하하하"" 선생님, 아픈(상한 딸기)딸기가 있어요. 먹으면 안돼요.""와! 딸기 꽃이다. 정말 하얀색이다. 몇 개지?"

'잘 다녀왔나?'는 원장님의 인사말씀에 이구동성 큰소리로 "네~ 딸기가 엄청 맛있었어요. 딸기 속에 구멍도 있었어요." "엄마 준다고 딸기를 먹지 않고, 종이컵에 담은 'OO' 애기에 원장님은 웃음으로 응원하시며, 계속적인 기본생활습관 교육도 당부하셨다.

김동현/기자



### 건강한 교육 파트너십 확립을 위한 2024 예천군 학부모회장협의회 개최



예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4층 대회의실에서 '건강한 교육 파트너십 확립을 위한 2024 예천군 학부모회장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 2024학년도 예천군 학부모회장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을 구성하였다. 이어서 ▲ 회칙 개정 사항을 논의하고, ▲ 2024학년도 학부모회장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회장단은 앞으로 예천군 학부모회장협의회를 대표하여 지역 내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 당국

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강한 교육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회원들 간의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학부모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천교육지원청 이창희 교육장은 "학부모회장협의회를 통해 학부모-학교-교육지원청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교육 파트너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선일/기자

### 경북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시스템 '디지털지식마루'서비스 오픈

전국 최초 마이크로디그리, 디지털 배지 발급을 통한 디지털 역량 인증 시스템 도입  
임종식 교육감, "디지털 교육도 전국 최고를 넘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지난 17일부터 전국 최초로 디지털 역량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 '디지털지식마루(https://gmooc.gbe.kr)'를 오픈한다. 디지털지식마루는 경북교육청 소속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디지털 기초 소양,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 첨단 분야의 온라인 강좌 110여 종을 제공한다.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경북교육 구성원의 미래 역량을 기르고 디지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구축된 디지털지식마루는 기초, 심화 과정부터 자격증 취득에 대비한 전문 과정까지 다양한 분야의 수준별 강화를 제공하며, 마이크로디그리, 디지털 배지 발급 등 디지털 역량 인증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디지털 역량 인증 시스템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지정된 분야의 온라인 과정을 이수하면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과 단계별 디지털 배지를 수여하고, 이수증과 배지 획득 수량 및 단계에 따라 디지털 졸업장과 디지털 마스터 배지를 발급한다.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마이크로디그리와 디지털 배지를 발급하는 것은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자기 주도적 디지털 교육 참여를 독려한다.

또 디지털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지식 나눔터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식 나눔터는 디지털.SW.AI.에듀테크 등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이 직접 실시간 쌍방향 원격 강의를 개설, 운영하고,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나 신청하여 강화를 들을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활용 노하우를 교사들이 직접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디지털 지식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디지털지식마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은 MS Office 365 계정을 통해 가입하고, 학부모는 소셜(네이버, 카카오) 계정과 연동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한편 디지털지식마루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수강 신청 이벤트와 수강 후기 남기기 이벤트가 진행된다. 오픈 이벤트는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이벤트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디지털지식마루는 전국 최초로 디지털 역량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로 경북교육 가족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디지털 교육도 전국 최고를 넘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영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관내 학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실시



영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지난 15일(월)부터 17일(수)까지 3일간 관내 초·중·고 13개교와 도서관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 업체와 함께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학교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샤워실, 기숙사 등 학교 내 불법 촬영 취약 장소에 연 2회 불법 촬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점검의 전문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있다.

학교 방문 시에는 점검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용 인원이 많은 시간을 피하는 등 교육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점검이 불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점검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된다.

김유희 교육장은 "전문업체에 의뢰한 정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시

안정초등학교는 지난 17일(수), 본교 강당(용암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에게 도박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대처 방법을 소개했다.

학생들은 게임과 놀이로 시작된 도박이 어떻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도박 중독이 개인과 가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등을 배우고, 도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류동희 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Large colorful poster for the 47th Boseong Tea Festival. It features various event details: '제47회 보성군민의 날 5. 3.(금) 보성공설운동장', '제19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 4.(토) 8:00 ~ 16:00 보성공설운동장',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 4.(토) ~ 5. 6.(월)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일원', '제20회 어린이날 행사 5. 5.(일) 보성군 일원', '제2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5. 4.(토) ~ 5. 6.(월) 용치면 용변리 일림산 일원', and '제2회 보성데일리콘서트 with 드론쇼 5. 4.(토) ~ 5. 6.(월) 농협마트 주차장(보성역 옆)'. It also lists sponsors like '주최/주관 보성차생산자 조합 |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and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보성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A QR code is in the bottom right corner.



##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식목일 기념 묘목 식재 및 소방합동훈련 실시

### - 자연을 가꾸고 안전을 지키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ESG경영 실천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식목일을 기념하여 4월 16일에 토함산자연휴양림에서 묘목을 식재하고, 경주소방서 문무대왕면 119지역대와 불철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대비 소방합동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토함산자연휴양림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품은 토함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면적 121ha (363,000평)의 휴양지로, 공단은 이곳에 숙박시설과 야영시설, 세미나실, 체육시설, 휴양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고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묘목 식재는 식목일을 기념해, 숲의 소중함과 자연보전의 마음을 되새기고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공단 임직원 20여명이 참여 묘목 식재를 통해 울창한 숲속에 어우러진 야생화와 곧게 뻗은 수목, 임도 주변에 가

지런히 놓인 관목 등의 볼거리를 보장하고, 테마숲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소방합동훈련은 문무대왕면 119지역대와 함께 토함산자연휴양림에서 실제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각본 없는 화재대응 및 대피훈련으로, 화재 대응 조직도를 토대로 상황전파 및 초기 화재진압, 이용객의 대피유도와 구조활동 등을 실천처럼 수행한다. 또한, 산불화재 대응 훈련 종료 후에는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의 이론 및 실습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정태룡 공단 이사장은 “식목일을 맞이하여 묘목을 식재하여 탄소중립을 적극 실천하고, 소방합동훈련을 통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산불예방과 진압은 물론 이용객들의 안전역량

을 한층 더 높임으로써 ESG경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윤태용/기자



## 영덕대게,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11번째 수상

국내 최고 권위 시상에서 역대 11개만 이룬 명예에 전당 입성  
김광열 군수, “오늘의 영광과 명성이 후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대게 자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시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혀



영덕군의 명물 영덕대게가 국내 최고의 권위와 신뢰도를 가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수산물 부문 총 11회 수상이라는 대업을 이루며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iMBC, 동아닷컴, 한경닷컴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은 국내 모든 브랜드 중 소비자들로부터 인기와 사랑을 받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고, 이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자 2006년 처음 제정됐다.

올해의 경우 부문별 각 브랜드의 매출액, 시장 점유율 등의 사전 기초조사와 전문가 그룹조사로 지자체 520개, 공공기관 142개, 기업체 2,490개의 후보 브랜드를 선정해 약 330만 건의 소비자 인터넷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자체 중에는 영덕대게를 포함한 23개의 브랜드가 기준치를 넘겨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게 됐으며, 기업체는 20개가 이름을 올려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상식이 이뤄졌다.

영덕대게는 2012년 처음 대상을 받은 이래로 2013년, 그리고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연속 수상, 다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속 수상해 수산물 부문 총 11번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역대 전국 11개 브랜드만 이름을 올린 명예에 전당에 입성했다.

영덕대게는 영양염류가 풍부한 사니질에 서식해 각종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담백한 맛과 향이 일품이다. 매년 11월부터 5월까지 강구대개거리 영덕대게 맛을 보려는 전국 미식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영덕군은 1998년 ‘영덕대게’를 상표로 등록하고 매년 영덕대게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속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 2010년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G20의 만찬장에 올라 화제가 됐고,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대표 수산물로 전시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영덕군은 지역의 대표 수산물인 영덕대게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10억 원을 투자해 대게 서식지와 산란장인 보육초를 조성하고, 56톤급 다목적 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건조해 불법조업을 지도·단속하는 등 영덕대게의 자원 보호와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윤근수/기자

## 울진군,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소산업도시’ 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

손병복 군수,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울진에 원자력수소 산업 육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더불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혀

울진군은 지난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수소산업도시 부문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군은 지난해 3월 15일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올해 2월 14일에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3월 26일에 입주희망 기업인 GS건설·롯데케미칼·GS에너지·삼성E&A·효성중공업·비에이치아이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는 등 올해 5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목표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울진군은 신항을 3,4호기를 포함하면 향후 10기의 원전을 보유하게 되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 원전 보유’ 지역으로서 지난 40년 동안 국가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원자력산업을 적극 지향해 왔으며,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원자력수소산업 또한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탄소중립 시대에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과 에너지 안보 강

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수소는 원자력의 열과 전기를 활용하여 생산하게 되는데 높은 경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으므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에너지로,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연구개발이 한창이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는 국내 수소 관련 대기업을 비롯해 소부장 제조업체와 연구시설 등이 집적될 예정이며, 수소생산 특화와 더불어 저장·운송·활용 등 수소 전주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탄소중립 시대 핵심과제인 국가 수소 산업을 울진에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가게 될 전망이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46만평 규모로 국가산단이 조성될 예정이며, 경제적 파급효과 17조 원, 고용유발효과 3만 8천명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 지역에 희망과 활력을 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손병복 군수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은 울진 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극복해 나갈 대안이 되어줄 것이다”라며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울진에 원자력수소 산업 육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더불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 포항시, 소통이 있는 행복한 가족성장 지원 프로젝트 실시

맛벌이 부모를 위한 야간·토요반, 동반자녀프로그램으로 만족도 UP

포항시가 포항교육지원청, 굿네이버스 경북동부지부, 경북동부야동보호전문기관, 포항가족센터와 함께 ‘슬기로운 부모학교’를 진행한다.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성장하는 행복한 양육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한 연간 프로젝트의 하나인 이 프로그램은 오전지역 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11일 ‘자녀에게 육하지 않으려면?’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강의를 마쳤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기존의 부모 교육은 시내 지역에서 진행돼 참여가 어려웠는데, 집 가까이에서 이런 좋은 교육을 들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저녁 시간 동반한 자녀들을 위해 마련된 놀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사회성 및 창의력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돼 함께 온 자녀들도 만족하는 시간이 됐다.

남은 강의는 ‘사춘기 자녀 이해하고 소통하기’, ‘꿈꾸는 자녀 지지하는 부



모’라는 주제로 오는 18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시는 다문화가정, 해병가족 학부모, 북구 지역 학부모 등 대상별, 직군별, 지역별 부모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어린이집, 직장,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부모학

교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현주 교육청소년과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기쁨과 보람을 얻고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태용/기자

## 경주 주요 사적지, 튜립과 양귀비 등 봄꽃으로 만개

동부사적지, 향릉사지, 분황사, 황남고분군 등 사적지, 시민·관광객 발길 이어져  
주낙영 시장 “화훼 식재 통해 시민·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천년고도 경주의 대표 관광지인 동부사적지 ‘침성대’ 주변이 봄꽃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꽃들로 물들어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경주시는 아름다운 꽃과 어우러진 사적지를 조성하기 위해 △동부사적지 △향릉사지 △분황사 △황남고분군 등 주요 사적지 4곳에 화훼를 식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봄꽃 조성을 위해 11만 7300㎡에 다양한 종류의 계절 화훼를 식재했고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했다.

먼저 동부사적지 4만㎡ 공간에 튜립, 양귀비꽃, 금영화, 라넌쿨러스, 루피너스 등을 식재했고, 향릉사지 3만㎡에 청보리와 유채를 식재했다.

또 분황사 5300㎡에는 빨강색의 양귀비꽃을 식재했고, 황남고분군 4만 2000㎡에는 유채를 식재했다.



이처럼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꽃들이 만개하면서 도심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봄꽃들의 유혹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만개한 겹벚꽃을 보며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명활산성~진평왕릉에 이르는 총 길이 1.8km의 선덕여왕길도 상춘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특히 맨발걷기가 휴을 밝으며 발바

닥을 자극해 건강을 증진시키며 스트레스까지 날려주는 운동으로 알려지면서 선덕여왕길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사계절 내내 다양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한 꽃단지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사적지와 더불어 꽃단지가 조성돼 있는 차별화되는 곳인 만큼 시민들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시는 다음달부터 시민들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여름꽃과 가을꽃 파종에 나설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 춘계 초·중·고 육상경기대회 개막

육상 꿈나무들의 열기로 뜨거운 예천스타디움, 지역 경기도 꿈틀!

예천군 예천스타디움에서 ‘제53회 춘계 전국 초·중·고 육상경기대회’와 ‘제12회 춘계 전국 초등학교 육상경기대회’가 육상 꿈나무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개막했다.

한국중·고육상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열리며 초등부 130팀, 중등부 162팀, 고등부 96팀 등 전국 388팀의 선수들이 참가해 초·중·고 학년별 120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펼치게 된다.

특히 ‘2024홍콩인터시티 국제육상대회’와 ‘2024한중일 주니어육상대회’ 선발전을 병행하는 이번 대회는 사전훈련을 위해 대회 개최 2~3일 전부

터 물러내 참가선수단으로 예천스타디움은 북새통을 이뤘으며, 선수와 임원 4000여 명이 머물면서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도 엄청난 활기를 띠고 있다.

예천군은 경기장 및 주변 시설을 정비하고, 숙박·음식업 종사자들도 친절한 서비스로 선수단을 맞는 등 선수들이 최적의 조건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매년 5~8개 개최하던 육상대회를 올해는 10개까지 늘려 유치했다.”며 “이를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와 육상메카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 문경시농업기술센터, 과수 꽃가루 은행 운영

개화기 기상 이변에 따른 결실률 저하 및 정형과 감소 대응

문경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 개화기를 맞아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5월 말까지 관내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꽃가루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꽃가루 은행은 이상기후 발생과 꽃가루를 수분시키는 매개 곤충 감소, 화상병 확산 등으로 수입 꽃가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 등에 대비하여 국내산 꽃가루를 활용한 인공수분을 통한 안정 착과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농가에서 꽃봉오리를 따오면 꽃밥(약) 채취기, 정전기 등 구비된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채취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다음 해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냉동실에 장기 보관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꽃가루 은행 운영으로 고품질 과수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봄,

영양으로 GO!



제19회

# 영양산나물축제

YEONG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5월 9일(목) - 12일(일) 영양읍내 / 일월산 일원



주최  영양군  
YEONGYANG-GUN

주관  YFTF 영양축제관광재단  
Yeongyang Festival & Tourism Foundation